

---

碩士學位 請求論文

忠孝倫理의 教育的 展開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安 昶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鄭 倉 樹

1990年度

---

# 忠孝倫理의 教育的 展開에 관한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鄭 倉 樹

指導教授 安 昶 範

1990年 10月 日

鄭倉樹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10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高性俊



副審

安永範



副審

梁邦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I. 緒 論 .....	1
II. 忠孝의 本源的 意味 .....	3
1. 孝의 意味 .....	3
2. 忠의 意味 .....	5
3. 忠孝의 相互關係 .....	8
III. 忠孝倫理의 現代的 意義와 沮害要因 .....	12
1. 忠孝倫理의 現代的 理解와 教育의 當位성 .....	12
2. 忠孝倫理의 沮害要因 .....	17
IV. 忠孝倫理教育의 展開試案 .....	20
1. 忠孝教育의 基本方向 .....	20
2. 家庭教育의 整立 .....	22
3. 學校教育의 強化 .....	26
4. 社會教育의 實現 .....	29
V. 結 論 .....	33
參 考 文 獻 .....	35
ABSTRACT .....	38

## I. 緒 論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의 向上을 이룩하였으나, 倫理, 道德的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칫 社會的 連帶感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망각함은 물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인 行動을 함으로써 사회범죄, 청소년 비행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풍조를 극복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倫理觀의 확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傳統的 家庭倫理인 孝와 社會倫理인 忠의 思想을 새롭게 탐구하고 바로 교육시킴으로써 청소년문제 나아가 社會的 諸問題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意義있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확고한 윤리관의 확립과 실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忠孝倫理가 제기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전통윤리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忠孝倫理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忠孝倫理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의 윤리여서 비민주적, 비현대적이라는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現實에 비추어 볼 때, 맹목적인 忠孝教育에 앞서 忠孝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대적 생활감각에 맞게 調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忠孝倫理의 本源的 意味를 探索하고 現代的 理解를 통하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 교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교육을 통한 教育의 展開를 模索해 보려 한다.



## II. 忠孝의 本源的 意味

### 1. 孝의 意味

孝의 의미는 語源的으로 볼 때 글자의 구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老親)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으로 아버지와 자식 사이(親子之間)에 형성되는 원초적인 관계이다.<sup>1)</sup> 그 관계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질서규범이 바로 윤리덕목으로서 孝이다.

孝의 뜻을 구체적으로 把握하기 위해서 孝行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일, 부모에 대한 衣食의 奉養을 充分히 함, 부모에게 順從함, 부모의 병을 근심하고 잘 돌보아 드림,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喪服을 입음, 先祖를 잘 받들고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함 등등 다양하다.<sup>2)</sup> 이를 통해서 볼 때 孝란 자식이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 주신 데 대하여 당연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까지도 공경 봉사함으로써 그 恩功에 報答하는 자식의 道理를 말한다. 이와 같은 孝는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親子의 관계는 단순한 動物的 生理現象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범주를 넘어 愛情과 尊敬心으로 맺어져 있는 人倫關係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이 孝의 問題가 提起되는 근본 이유이다.

동양의 고전을 통해서 전통적인 孝의 의미를 살펴 보면 「孝經」에서는 孝를 仁

- 
- 1) 「說文解字」에 의하면 ‘孝’字는 늙은이 老字를 아들子字가 업고있는 형국의 會意文字로서 字義는 ‘善事父母者’ 즉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2) 李熙昇,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5)과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박문사, 1975) 및 韓國語辭典編纂會編, 「한국어대사전」(서울: 현문사, 1976) 참조.

을 實現하는 原初的인 行爲로 보아 가장 중요시 하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百行之本”이라고 하였다. “무릇 효도는 덕의 근본이며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sup>3)</sup> 라고 하였으며, 또한 “孝道는 곧 하늘이 낸 眞理인데 日月星辰의 運行과 같은 필연적인 것이며 地上의 生物을 바르게 기르는 땅의 임무와 같은 것이며 百姓의 당연한 行爲인 것이다.”<sup>4)</sup> 라고 하였다.

이황 ( 1501 ~ 1570 )도 “효도는 온갖 행실의 근원이다.”<sup>5)</sup> 라고 하였다.

한편 孝를 義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論語」에서는 孝弟也者 其爲仁之本 與라 하여 孝는 仁에서 나온 인간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sup>6)</sup>이라 하였고 朱子 ( 1130 ~ 1200 )는 父子有親의 親이란 부모는 자식에게 慈愛로움을 다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孝道를 다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라 하였다.<sup>7)</sup> 즉 父母는 자녀에 대하여 온갖 精誠과 따스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義務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孝道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內在的 自律的 義務로서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自由意思를 前提로 한 雙務的 義務로서 인간의 本性인 普遍的 同情心 즉 仁을 根本으로 한다. 그러므로 慈와 孝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주고 ( 施 ) 갚는 ( 報 ) 일이며 父子有親의 本意인 것이다. 즉 報本反始인 것이다.<sup>8)</sup>

3) 金學主 譯, 孝經傳, 제 1장 開宗明義, 「忠經·孝經」(서울; 明文堂, 1986), p.132.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

4) 上揭書, 孝經, 제 7장 三才, p.149.

“會子曰, 甚哉孝之大也, 子曰 夫孝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5) 「海東小學」, 明倫篇, 明父子之親章; 孝 爲百行之原. 金淇烈, “忠孝思想의 研究”, 趙鎭泰 編, 「오늘의 忠孝教育」(서울: 문중서관, 1977), p.133, 재인용.

6) 申澈元 譯, 「論語」, 學而편, (서울: 은광사, 1987), p.7 참조.

7) 金淇烈, 上揭論文, p.134.

8) 金鶴坤, “忠孝의 韓國思想史的 發達과 現代教育의 發展을 위한 探査의 研究”, 전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14집, 1978, p.176.

또한 孝 행위의 확대 발전 관계를 보면 孝는 자기 生命의 소중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는 자기의 本來性을 추구하는 思想에서 출발하여 根天之孝라는 말로써 자기 生命의 根本인 祖上을 숭배하는데 까지도 발전한다.<sup>9)</sup> 자기를 태어나게 한 조상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즉 자기 生命의 근원을 敬愛하는 것이 孝였다. 조상과 부모와 나의 一體感, 同根感은 자기 生命에 대한 사랑의 縱的인 확대로 발전하였고, 보다 높게는 하늘(天)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孝는 또한 敬天崇祖 思想의 根天之孝를 말하는 것이다.<sup>10)</sup>

이에 관해서 「孝經」에는 “효자가 아버지를 섬기고 제사에는 엄함을 다할지니라”<sup>11)</sup>라 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도 孝는 生前 뿐만 아니라 死後에도 계속되는 것으로서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성껏 모셔 代를 이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을 傳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의 종적 확대는 하늘과 조상뿐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회인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橫的 확대로까지 發展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 2. 忠의 意味

忠은 孝와 더불어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倫理였다. 그것은 때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게 政治的 視角에서 脚色되었고 때로는 권위적인 政治社會的 풍토 속에서

9) 金裕赫, “孝의 本質”, 趙鎮泰編, 「오늘의 忠孝教育」(서울; 문중서관, 1977), p.135.

10) 上揭論文, p.135.

11) 「孝經」, 제 10 장, 紀孝行, 孝子之事親也, 祭則致其嚴.

12) 曹奎南, “孝思想의 韓國教育的 發展過程의 分析的 研究,” 전주대학, 「논문집」, 제 11집, 1982, p.532. 참조.

는 體制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教條的인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했다.<sup>13)</sup>  
그래서 忠의 바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忠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忠은 그 字形으로 보아 中字와 心字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자신에 대하여 속임이 없고 곧고 바름을 뜻한다.<sup>14)</sup> 따라서 忠이란 自己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다하는 것인데 특히 남에 대해서 속임이 없고 私事로움이 없는 自己의 모든 精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中國 漢나라 때의 馬融(AD 78~166)은 그의 著인 「忠經」에서 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 지극한 이치가 실현되었을 적에는 위 아래가 한 德이 됨으로써 하늘의 훌륭한 뜻을 밝히었는데, 이것이 忠의 道인 것이다. 하늘이 위를 덮고, 땅이 만물을 싣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忠>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것이다.

忠이란 中正의 뜻이니 지극히 公正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하늘은 私가 없이 四時를 운행하며 땅도 私가 없이 만물을 생성시키고, 사람은 아무런 私가 없이 크고 바른 도리에 통한다. <忠>이란 것은 그 마음이 하나로 하는 것

---

13) 金命禮, “忠孝思想에 관한 研究” 전국대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원, 「사회과학」 제 9 집, 1985, p.12.

14) 「忠」이란 마음이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중심이 잡혀져 있다는 뜻으로 字源的으로는 풀이된다.

「說文」에서 ‘中+心’으로 분해됨으로써 이 두 글자의 뜻을 발판으로 하는 合成語로 보고 있다.

上揭書, p.12.

을 말한다. 나라를 위하는 根本이 忠이므로 어찌 忠에 힘쓰지 않을 수 있으리요”<sup>15)</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論語」에서는 ‘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參아 나의 도(道)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증자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제자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에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忠恕일 따름이니라」<sup>16)</sup>하였다. 즉 忠은 만사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主忠信”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自己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또는 바로 自己의 中心, 즉 主體性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또 程子是 사람의 도는 忠과 信에 있다 하였고, 이를 誠實性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忠이란 主體的 誠實性을 다하여 더 남음이 없는 상태와 같다고 하고 있다.<sup>17)</sup>

또한 忠은 “그 마음을 한결 같이 하는 것”이라 하고 “盡心盡己”하는 것을 忠이라고도 한다. 忠愛”니 “忠友”니 “忠益”이니 “忠義, 忠實, 忠恩, 忠順, 忠信”이니 하는 忠字가 들어 있는 어휘를 보더라도 어느 하나 이러한 意味가 意識되지 않고 쓰여진 경우가 없다.

15) 金學主 譯, 前掲書, p. 34.

「忠經」편 第一章, 天地神明.

：者在至理 上下一德, 以徵天休 忠之道也 天地所覆 地之所載 人之所履 莫大乎忠.

忠者 中也 至公無私 天無私, 四時行也 地無私 萬物生 人無私 大享貞, 忠也者 一其心之謂矣 爲國之本 何莫由忠.

16) 「論語」里仁 篇.

子曰「參乎 吾道 一以貫之」曾子曰「唯」子曰, 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 忠恕而已矣」증자는 공자의 도가 忠과 恕로 관통되어 있다 하였다. 그것은 공자가 주장하는 仁이 忠과 恕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忠>은 정성을 다하여 일에 임한다는 뜻이고 <恕>는 남을 대할 때 늘 자신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忠은 나라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실한 마음가짐까지도 뜻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17) 安秉煜, “忠孝思想의 現代的 解釋” 大韓教育文化研究所, 「現代人의 忠孝思想」, (서울: 대한교육 문화연구소, 1979), pp. 41~43 참조.

그래서 忠은 心의 純粹誠實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 忠을 社會的으로 보면 그것은 對人관계에 있어서 “誠實心”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忠恕의 뜻이 되고 封建時代에는 국가적으로 보면 君主에 대한 誠實心이다.<sup>18)</sup>

즉, 忠의 대상은 自己自身, 家庭, 國家, 全世界이고, 어디까지나 마음이 한결 같고 公明正大함을 忠이라 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忠은 自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眞實되고 自意的이며 自發的 倫理의 行爲임을 말한다. 至公無私의 衷心에서 우러나는 眞實이며 精誠이고 自利에 情이 偏倚함이 없이 道德的 自我意識에 충실함을 말하는 것이다.

忠은 主體的 自我倫理이며 社會的 倫理로서의 참된 公共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忠은 衷心에서 울어 나오는 道德意識의 所産이며, 이러한 自我倫理 意識에 근거하는 것일 때, 社會的 忠의 倫理性은 個人과 社會, 人間과 天이 合一되는 生의 價値具顯의 倫理性을 지닌다.

### 3. 忠孝의 相互關係



지금까지 忠과 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忠과 孝의 관계는 어떠한가? 흔히 忠과 孝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일에 精誠을 다하는 忠의 實踐은, 곧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孝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8) 上揭論文, p. 43.

19) 「忠經」 제一章, 天地神明,  
一於其身, 一於其家, 一於其國, 感天地  
위와 같이 忠의 단계를 論하고 있다.

예로부터 忠臣은 孝子の 家門에서 찾으라고 傳해 오고 있고 「孝經」에서도 “아버이를 섬기는 道理로써 임금을 섬기되 恭敬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忠誠스럽다”<sup>20)</sup> 고 하였다. 이는 아버이를 恭敬하는 精神이나 임금을 공경하는 精神이 추호도 다를 바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孝를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sup>21)</sup> 이라 하였고, 「事君不忠非孝也」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忠과 孝는 一本으로서 忠은 孝의 發展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父慈子孝의 家庭倫理를 출발점으로 하는 孝가 社會, 國家倫理로 확대함은 百行의 根本으로서 孝의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孝는 忠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孝가 家庭을 바탕으로 生成되는 倫理體系라면, 그 가정의 확대개념인 社會나 國家의 次元에서 요구되는 概念이 忠이다. 孝가 誠으로 사랑(親愛)을 이루고, 사랑으로써 아버이를 섬기며, 最善을 다하는 能도를 바탕으로 成立하며, 忠은 그와 같은 孝의 原理로써 精誠을 다하여 社會나 國家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안으로는 孝를 다하고, 밖으로는 忠을 다하는 兩全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것이 곧 社會적으로 기대되는 自己完成이며, 孝가 요구하는 最善의 길이라고 본다.

요컨대, 忠孝 兩者의 관계는, 忠은 孝의 外面的 昇華倫理라면, 孝는 國家秩序 內에 存在하는 內在的 家庭倫理이기 때문에 孝는 忠의 內包概念이요, 忠은 孝의

20) 金學主 譯, 前揭書, p. 143.

「孝經」권 士章: 資於事父, 以事母 而愛同, 資於事父 以事君 而敬同, 故母取其愛 而君取其敬 兼之者 父也 故 以孝事君則忠.

21) 上揭書, p. 132.

「孝經」권, 開宗明義章.

여기에는 孝는 아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는 입신양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外延概念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孝와 忠은 결코 排他的인 개념이 아니며 相生 相輔的인 관계에 있어서 孝가 발전하면 할수록 忠도 發展할 수 있고 忠이 充實하면 할수록 孝도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倫理는 忠孝思想의 本質에 비추어 形式論理的으로 可能할 뿐이고 具體的 事實에 있어서는 孝道와 忠道の 實踐面에서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두개의 道德的 命題가 가지는 質的 또는 量的 價値體系의 問題가 될 것이므로 그 狀況性에 立脚하여 추리되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孝의 倫理는 父母와 子女와의 관계에서 淵源하느니 만큼 第一義的으로는 수직적 性格을 띠게 된다. 이 垂直性은 과거의 祖上과 미래의 子孫으로 무한하게 波及되어 드디어는 氏族을 넘어 部族으로 民族으로 人類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忠의 倫理는 孝의 수직적 倫理와는 달리 社會와 國家와 人類라는 水平的 性格을 띠게 된다. 이리하여 수직적 倫理로서의 孝와 수평적 倫理로서의 忠은 같은 原點에서 出發하여 각기 다른 方向으로 확대·발전하나 終局에 가서는 同一한 귀착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수직성과 수평성에 의한 平面的 또는 立體的 구조는 국가 또는 인류라는 복합적 有機體로 表現된다.

그리고 孝忠思想이 誤導되면 孝倫理는 血緣主義 내지 家族主義에 빠져 集團利己主義 또는 派閥主義를 낳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孝의 短點은 自他를 一體로 보는 至公無私의 忠思想에 爲하 補完된다.<sup>22)</sup>

22) 安祿範, “韓國 忠孝思想의 研究”,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1978, p. 23.

---

忠思想은 이상과 같이 孝思想의 약점을 보완시키는 役割을 하는 反面, 爲國之本 또는 愛國이라는 全體主義的 國家主義思想을 갖고 있다.

愛國이라 함은 한 國民이 自己가 속한 國家에 대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나 人間의 情意的 感情的 要素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人間の 사리사욕과 권세욕이 결합할 경우, 愛國은 國利民福을 가장한 全體主義的 國家主義에 떨어지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忠思想에도 人間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한 兄弟로 보는 孝思想이 요청된다.<sup>23)</sup>



---

23) 上掲書, p. 25.

### Ⅲ. 忠孝倫理의 現代的 意義와 沮害要因

#### 1. 忠孝倫理의 現代的 理解와 教育의 當爲性

우리는 민주화·산업화·대중화·개방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倫理 德目으로서 忠과 孝를 옛날 사람과 꼭 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現代의 狀況과 生活에 맞도록 再構成하여 우리 生活의 指針으로 삼아야 한다.

忠孝倫理의 現代적 적용에 대한 立場은 크게 肯定說과 否定說, 그리고 時代에 알맞게 受容해야 되겠다는 立場의 折衷說의 세가지로 나타난다.

李乙浩는 忠孝思想의 肯定說, 否定說, 折衷說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4)</sup>

##### ① 肯定的 立場

西歐思潮의 流入過程에서 發生된 지나친 個人主義·拜金主義 등 바람직하지 않는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傳統的 忠孝思想을 다시 복구해야만 한다는 立場이다.

##### ② 否定的 立場

서구사조의 流入에 의한 近代化의 물결은 산업구조에 一大變革을 가져옴으로써 社會構造에도 變革을 가져왔고 따라서 우리의 意識構造마저도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歷史的 필연으로써 이에 逆行하는 요인은 허용할 수가 없다. 이제 忠孝思想은 封建的 體制下에서의 산물로서 近代적 유물

24) 李乙浩,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忠孝思想,” 大韓教育文化研究所編, 「現代人の 忠孝思想」, (서울: 대한교육문화연구소, 1977), pp. 174~175 참조.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서 全적으로 排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立場이다.

③ 折衷的 立場

우리는 현재 時代的으로 變혁기에 처해 있는 것이 事實이다. 농촌의 도시화, 핵가족화로 分散移讓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화 일변도의 傾向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령 이러한 물량적 또는 구조적인 변화는 어찌할 수 없는 歷史的 필연성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主體的 立場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反省에서 다시금 전통사상을 그대로 無條件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杼대에는 새술이라는 태도로 이를 再評價하여 새 시대에 알맞게 수용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忠孝思想을 再吟味하자는 것이 折衷的 立場이다.

肯定的 立場은 아무래도 儒家의 立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의 人道的 精神을 상징하는 仁이 孝에서 전개 확대됨으로써 그것이 비단 家族倫理로 뿐만 아니라 民族愛, 人類愛로 연결되는 것이라 하였다.<sup>25)</sup>

어버이를 사랑하는 孝의 精神은 인간을 사랑하는 仁이 精神의 具體的인 發見임을 論議하고 이러한 仁과 孝의 思想은 民族史를 통하여 깊이 작용하고 영향을 주어진 것으로 傳統精神의 核心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忠과 孝는 家庭倫理요, 社會倫理로서 나아가 國家倫理로서 人間本연의 行爲規範이요, 生活德目으로서 영원히 傳承 지속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라고 본다.

---

25) 李榮德, 「韓國人의 人間觀」, (서울: 三和書籍, 1977), p. 122.

否定的 立場에서는 忠이란 봉건제도의 산물이요, 孝란 농경사회에서 發展된 만큼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산업사회에서는 오늘의 實情에 맞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主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的인 社會는 東西가 서로 만나고 있으며 그러한 만남속에 傳統과 外來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한쪽도 송두리채 無視하고는 오늘의 우리 生存은 不可能한 實情이기 때문에 折衷의 立場에서 論理展開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前述한 肯定說은 現實을 무시한 觀念論에 흐르기 쉽고 否定說은 傳統을 무시한 독선론에 빠지기가 쉽다.

우리는 이 兩極을 어떻게 調和하여 새로운 倫理觀의 價値體系를 확립해야 하느냐의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肯定說은 現實에 적응할 수 있는 自己反省이 필요하며 否定說은 傳統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리하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條件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平等倫理의 기반 위에서 樹立되어야 한다.

둘째는, 人間性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는, 實踐이 따르는 行의 倫理이어야 한다. 즉 觀念化되지 않아야 한다.

네째는, 直接的인 인간관계가 되어야 하며,

다섯째는, 歷史的인 發展에 逆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sup>26)</sup>

---

26) 李乙浩, 前揭論文, p.186 참조.

以上과 같은 몇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오늘의 忠孝倫理를 檢討한다면 과거의 神祕的인 孝子像은 合理主義的 現代社會 안에서는 存立할 수 없으며 一片丹心에 죽는 貞節의 烈女像도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는 희귀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忠은 요즘말로 옮기면 誠實性이라 볼 수 있겠다. 對人關係와 對物關係에서 참되고 誠實한 것이 忠의 本來의 意味라는 것은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다. 또 「忠經」에서는 忠은 至公無私라고 하여 우리의 마음이 公明正大하고 조금도 거짓이나 私心이 없는 것이 忠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忠을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生生한 現代倫理의 근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sup>27)</sup>

孝는 부모에 대한 知恩과 感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오는 報恩의 情이요 實踐이다. 자기의 부모를 아끼고 위하는 것이 생명존중의 첫걸음이다. 孝는 부모의 人格尊重이고 인격존중은 現代倫理의 根本이다.

부모의 人格을 존중하고 平和로운 가정을 건설하는 것은 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다. 孝를 이렇게 解釋할 때, 現代의 善 倫理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은 古典的 忠孝思想에 나타난 外形的인 面보다는 그 根本精神, 즉 인간적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를 지극한 精誠으로 사랑하듯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본다.

---

27) 「忠」의 개념을 國家的이고 政治的인 차원에서 發展시키면 國家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誠, 精誠, 誠實 등을 뜻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나라사랑하는 마음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金錫坤, 前揭論文, p. 172.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의 一方的인 강요가 아닌 웃사람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古典的 忠孝思想의 근본정신에 바탕을 둔 忠孝教育을 실시하여 올바른 價値觀을 심어주어 自發性에 의한 진정한 精誠을 기대해야 한다.

安商元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나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전통사상, 전통윤리라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 이를 배격하는 風潮가 있다고 前提하고 이러한 風潮는 엄격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忠孝思想이 우리가 계승할만한 가치있는 文化的 傳統이라면 새로운 忠孝라는 새옷을 입혀 다듬어야 할 것이다. 事軍以忠이니 事親以孝니 하며 지난날의 유학자들이 忠孝의 道德倫理를 政治的으로 이용하여 一方的인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思考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忠孝의 本來的이고 本質的인 意味는 그러한 것이 아닌 아상 現代的 感覺으로 再構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28)</sup>

韓基彦은 忠의 思想은 個人生活의 原理로서도 필요한 것이고 한 나라의 市民으로서 그가 맡은 바 직무에 責任과 義務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요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忠國이라는 것을 그간 써온 말로 옮겨보면 市民教育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9)</sup>

尹哲炳은 忠孝教育은 우리의 단순한 賣務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갈 우리의 信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30)</sup>

28) 金會式, “忠孝教育의 現代的 考察,”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4집, 1978, p.16에서 재인용.

29) 韓基彦, “韓國人의 意識構造와 忠孝思想,”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首都教育, 1977, 4.), p.16.

30) 金會式, 前揭論文, p.25 재인용.

## 2. 忠孝倫理의 沮害要因

앞에서 논의한 忠孝에 대한 現代의 理解와 當爲性외에도 忠孝倫理의 실천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여러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崇高윤리를 교육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筆者는 다음의 네가지 側面에서 그것을 정리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忠孝의 規範的인 當위성은 存在하고 있었지만 忠孝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教育이 不在했었다는 점이다.

忠孝教育의 不在現象은 자라나는 世代에게 精神文化的인 안식처를 찾아갈 수 있겠음 기회를 주지 못했고, 또한 그런 能力을 길러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世代 일수록 外國지향적인 意識이 강렬해져서 모든 價値判斷의 기준을 韓國인적 立場에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서구적인 立場에서 찾으려는 풍조가 생활 주변에까지 깊이 침투 확산되어 마치 「西魂韓人型」의 人間상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忠孝의 倫理는 無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둘째, 利己觀念의 異常的 發達刺戟이라는 점이다.<sup>31)</sup>

現代社會의 기능이 고도로 分化됨에 따라 人間の 역할도 专业化되어 가고 있으며 物質文明의 영향이 社會 전반에 一방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社會적 상황을 數字的 尺度에 따라 評價되고 그에 따라 社會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 같은 社會的 發展狀況으로 들어나는 合理性의 추구방식이 制度化되어 가

---

31) 梁承奉, 「人間性 回復을 위한 人間教育」, (서울: 法經出版社, 1988), p. 389.

는 것은 肯定하지만 問題는 道德的인 가치마저 金錢으로 환산하려는 사고방식의 助長이 忠孝倫理의 根底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셋째, 世代間을 連結하는 縱的인 대화의 결핍이다.<sup>32)</sup>

대화는 社會的 共同意識 形成의 기본이며 이러한 대화의 결핍현상은 社會意識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고 社會적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구세대와 신세대를 운운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世代의 계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一生이 끝난 다음에 아들의 일생이 나타나 뒤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先世代와 後世代가 同一한 社會文化的 상황속에서 一定한 기간 共存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면 그 原因은 대화의 결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靑少年의 非行問題가 社會問題로 提起되는 것도 人間成長의 元初적인 장소이며 傳統文化的 價値의 제1차적인 전수 장소인 가정에서 대화가 원숙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보다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가치를 正統성있게 다음 세대에게 傳授시키고 社會적 공감대를 造成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의 방법을 마련해야 될 줄 안다.

네째, 核家族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이 잘못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sup>33)</sup>

부부가 존재하면 당연히 자녀를 가지게 되고 親子關係가 形成되며 親子關係가 형성되면 父慈子孝라는 孝慈倫理가 있게 마련이다.

핵가족의 개념범위를 부부와 자녀까지를 포함했을 때 그것이 최소단위의 핵가

---

32) 上揭書, p. 398 참조.

33) 張眞鎬, 「教育과 社會」, (서울: 大恩出版社, 1986), p. 153. 참조.

족이라 할 수 있는데 事實에 있어서는 我·子·孫까지의 3代가 同居可能 世代임을 否認할 수 없다. 어떠한 側面에서 보든 핵가족사회에 있어서도 孝의 倫理관계가 本質적으로 存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핵가족제로 인하여 孝의 倫理가 소외되어야 할 理由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忠孝의 倫理는 핵가족사회에 있어서나 대가족사회에 있어서 本質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倫理임을 否認할 수 없다. 즉 핵가족을 一般的인 통념대로 부부가족에 국한시켰을 때 부부는 愛情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그 애정은 夫婦라는 횡적인 愛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측면으로도 發展되어 그것은 다시 혈연적인 愛情과 보편적인 愛情으로 분류되는데 혈연적인 愛情은 부부(父母)와 子女관계로 확대되면서 親子관계가 形成되어 孝와 慈의 倫理가 存在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視覺에서 볼 때, 핵가족시대로 轉移되어 간다고 해서 忠孝를 오도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 IV. 忠孝倫理教育의 展開 試案

### 1. 忠孝教育의 基本 方向

道德性은 認知的, 情意的 그리고 行動的 요소로 形成되는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이 세 요소들이 각기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一連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具體的인 社會的 事態에 作用하고 表現된다. 忠孝教育이 “道德性을 함양하는 教育活動”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以上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指導되어야 하겠다.

忠孝教育이 實際的 展開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狀況<sup>34)</sup>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 1) 純粹實踐狀況

이것은 理論的인 요소가 수단, 목적, 방법에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실천생활의 장면이다.

表面的 教育課程에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潛在的 教育課程의 형태로 認識되고 있을 뿐인 상황이다. 教師가 가지는 단정한 복장과 명량한 태도와 정다운 말씨와 같이 (비록 言語가 使用된다고 하더라도 道德的 目的이 言辭가 아닌) 일상적으로 접하는 生活의 場面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만 發見되는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 그 自體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

34) 李敦熙外 6人 共著, 「道德科教育」, (서울: 노력개발, 1975), pp. 195~198 참조.

## 2) 實踐優勢狀況

이것은 理論이 실천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意味를 가지는 상황이다. 물론 수단을 구성하는 것은 理論만이 아니다. 言語와 動作, 언어의 強勢, 그리고 言語와 態度的 表現 등의 어떤 행동의 성취를 目的으로 使用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된다. 實踐者는 역시 실천과정에서 言語에 의해 진술된 原理를 상기하면서 行하는 方法을 취한다.

標語, 警句, 教訓 등을 써 붙이는 등의 것은 여기에 속한다.

## 3) 實踐, 理論, 共通狀況

이것은 理論과 特質이 모두 手段, 目的, 方法에 역할하고 있는 상황으로 目的은 理論에도 있으며 實踐에도 있고 수단과 방법도 마찬가지로인 경우이다. 傳記, 自敘傳, 小說, 童話 등이 여기에 속한다.

## 4) 理論優勢狀況

理論이 수단, 방법, 목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特質은 단지 理論을 구성하는 言語에 담겨 있을 뿐이다. 흔히하는 수업사태에서의 討論, 說明은 여기에 속한다. 이는 道德的 思考를 수업에서 練習하고 發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純粹理論狀況

이것은 理論이 수단, 목적, 방법으로 역할한다는 점에서는 理論優勢狀況과 같으나 理論을 구성하는 言語는 그것이 指示物로서 어떤 特質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言語를 가리킨다. 즉, 言語에 관한 言語로서 구성된 狀況이다. 여러 가지 德目を 나타내는 개념들의 意味를 밝히고 倫理學的 基本개념들의 論理的

특징을 연구하는 活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狀況들은 道德的 理論 혹은 知識을 生活事態에서의 實踐에 연결되게 하는데 도울 수 있는 方法的 原理를 示唆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이러한 原理에 입각해서 忠孝教育에 관한 몇가지 기본방향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忠孝의 道德的인 規範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相互作用을 통해 現實化되고 人格的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忠孝價値를 理論的으로 뿐만 아니라 實踐的인 生活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學校教育에서 그 目標樹立과 實踐에 있어서 計劃的 合理的이고 繼續的인 忠孝價値教育이 되어야 한다.

네째, 價値와 規範에 대한 모방성이 강한 젊은 世代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垂範이 되어야 한다. 즉, 社會의 行動的 環境構成이 이루어져야 한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留意하여 오늘의 자라나는 世代가 傳統的인 忠孝倫理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現代的 價値觀으로 소화하고 이를 繼承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家庭·學校 나아가 社會 全般에 걸쳐 忠孝倫理가 自己 信念에 가득찬 行動的 價値觀이 될 수 있도록 教育的 노력이 새롭게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 2. 家庭教育의 整立

家庭은 人間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최초의 공동체이며 自我意識과 對他意識을 깨닫게 하는 최초의 社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가정에서의 成長과정을 통하여 제나름대로의 일을 배우고,

여러가지 知識을 얻으며 一生을 통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기본습관이 形成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情緒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家族들의 價値觀은 倫理教育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그러므로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精神文化의 根本인 忠孝價値의 教育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社會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에도 變化가 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家族制度가 무너지고 核家族制度가 도입됨으로써 孝倫理가 크게 붕괴되어 父母를 恭敬할 줄 모르고 스승을 대접할 줄 모르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反倫理, 反社會의 풍조가 눈에 띄게 번져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家庭을 통한 忠孝教育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家庭에서의 忠孝教育은 종래의 縱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던 봉건사회의 價値觀 中心이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의 공동연대의식을 바탕으로 社會的 倫理秩序를 形成시키는 家庭生活의 道로, 市民倫理 秩序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家庭에서의 忠孝教育이 孝中心 教育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편협한 家族主義的 保守性을 길러주어 배타적 경향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孝教育 그 자체가 國家·社會에 대한 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重要하다.

내집에서 父母를 지성으로 섬기는 孝는 밖으로 나라를 위해 나의 있는 힘을 다해 忠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家庭에서의 教育 그 자체가 忠孝를 겸비하는 인간교육이라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忠孝教育이 實効를 거두기 위해서는 家庭이 항상 道德的으로 淸淨

---

35) 張眞鎬, 前掲書, p. 156.

되어야 하며 가정의 社會的 環境이 정돈되어야 한다.<sup>36)</sup>

家族構成員들은 相互間에 人格을 존중함으로써 家族 전체의 和睦을 도모해야 하며 더 나아가 相互連帶意識을 強化하고 協助의 精神을 함양해야 한다.

規律과 사랑과 信賴에 충만한 가정이야말로 忠孝教育에 가장 重要的 기반이 된다. 또한 家族成員들이 건전한 價値觀과 事物에 대한 肯定的 태도와 습관을 가질 때,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奉仕와 희생을 할 수 있는 忠孝의 精神이 具現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家庭의 분위기는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社會的인 倫理秩序를 形成하는 요람이며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인 만큼 生活의 영역이 가정과 학교라는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아동기에 있어서 가정의 環境的 要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家庭에서各自가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父子의 관계, 兄弟의 관계, 夫婦의 관계가 機能的 關係로 짜여져서는 안되고 現存的 人間關係로 맺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精神的 측면에서 늘 친근감과 사랑스러움과 늘 같이 있고 싶음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져야만 한다. 現代 社會의 지배적인 價値概念이 이 機能的 秩序로 바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가정에서의 忠孝價値의 教育은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家庭에서의 忠孝에 대한 實踐方案은 다음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37)</sup>

36) 孫仁鉢, “忠孝思想의 學校教育 實踐方案.” 大韓教育文化研究所編, 前掲書, p. 203.

37) 上掲書, pp. 202~205 참조.

1) 정다운 家訓 아래 명랑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학교에 校訓이 있는 것처럼, 각 가정에는 家訓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사회생활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는 현대 생활에 맞는 家訓을 지녀야 한다.

그 家訓도 人間教育과 精神文化에 알맞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가정일을 돕고 형제간에 友愛있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孝」의 마음은 「友」의 마음과 떨어질 수 없다. 友란 兄弟愛를 말한다. 인간은 결코 社會와 완전히 絶緣된 존재일 수가 없다. 인간이 그가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情緒的인 안정감을 갖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부부간에 싸움이 잦은 집안은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부부간에는 서로 禮와 敬을 잃지 않고 화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 및 인격적 적응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愛情的이고, 情緒的인 따뜻한 의견교환을 자주한다.

4) 가족회의와 즐거운 가정 오락을 갖도록 한다.

가정의 행사가 있으면 부부끼리만 의논하지 말고,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계획도 세우고, 일도 나누어 맡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慈와 孝의 분위기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 3. 學校教育의 強化

忠孝教育은 學校教育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忠孝教育을 學校에서 하나의 教科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道德科나 기타 教科목을 통하여 行하여지고 있었던 것이며, 傳統的으로 忠孝教育은 학교교육의 目標 속에 그리고 內容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學校教育의 內容이 주로 知的(intellection)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 忠孝教育에 관한 한 지극히 적은 部分만을 다루거나 또 輕視되어왔을 뿐이다. 教育은 知識 注入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文化의 傳達過程이고 人格形成의 과정이며, 行動이 變化過程이고 經驗의 改造 過程으로서 知識 이외의 요소들이 強調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忠孝教育에 있어서도 知的 側面만을 강조하는 한 教育의 成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學校教育에서의 忠孝教育의 문제점인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단지 忠孝의 價値德目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習慣形成과 態度形成에도 많은 관심을 두지만 忠孝의 實踐에 관한 극히 제한된 관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忠孝教育에 있어서는 그 性格으로 미루어 보아 實踐에 대한 기대가 더욱 要求되는 것이며 學校教育에서 가르친 忠孝에 관한 知的 문제가 實生活에서 한 個人의 行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忠孝教育은 失敗한 結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學校教育은 이 같은 忠孝教育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세밀히 조직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現代社會의 公教育에서 추구하는 教育的 價値들은 특정 個人이나 특수 集團이 추구하는 價値가 아니라 그 公教育의 조직과 계

획에 관련된 全社會가 추구하는 가치들로서 그 집단 혹은 사회의 모든 成員에게 意味있는 보편적 가치들인 만큼 학교에서의 忠孝教育도 그 자체가 전문교육이나 특수교육이 아니라 일반교육 혹은 보편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忠孝教育이 다루는 價値德目은 개인이나 특수집단에 의해서 서로 다른 意味를 지니며 그 實踐方法도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父母에 대한 효도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제사의 形式을 취하는 家庭이 있는가 하면 종교의식에 따라 추도만을 하는 가정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忠孝의 價値德目を 實踐하는 方式의 다양성을 학교교육에서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實踐해야 할 忠孝의 행위선택을 스스로 決定할 수 없는 것이며 아동들이 實踐하고자 하는 행위를 自由롭고 合理的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思考의 틀을 잡아주며 實踐方法을 찾는데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sup>38)</sup>

그래서 학교에서 하게 되는 忠孝教育의 과정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에서는 忠孝의 實踐에 필요한 여러가지 規範과 原理를 指導하게 되는데 現代 感覺에 맞는 충분한 자료와 현실감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둘째, 學校에서의 忠孝教育은 知的 습득만을 目標로 해서 안되며 日常生活에서 忠孝의 실천을 전제로 한 각종 행사 및 環境을 組織하고 構成하여야 한다.

---

38) 梁承奉, 前掲書, p. 418.

세째, 學校는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奉仕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恭敬하는 人格을 提示하여 忠孝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學校에 있어서 忠孝教育은 여러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教科活動을 통한 指導

價値探究 中心의 授業을 效果的으로 展開하기

2) 日記 쓰기를 통한 指導

情意的 次元에서 지도되어야 하므로 일기를 통해 하루의 生活을 반성하고 내일의 생활을 설계하는 속에서 自意的인 가치관 教育이 된다고 본다.

3) 편지 쓰기를 통한 지도

부모 · 웃어른 · 이웃 등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4) 뿌리 찾기를 통한 教育

먼저 나 자신의 出生과 先祖의 來歷 등의 뿌리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5) 명상의 시간 운영을 통한 지도

경노 · 효친요소를 명상의 시간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6) 修鍊 活動을 통한 지도

야영, 캠핑, 유적지 답사, 예절수련, 자연보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

39) 教育研究社編, 「主任講座」, 제6권 6호, 1986. 6, pp. 40~43 참조.

하여 집단 수련을 실시한다.

#### 7) 敬老孝親에 관한 환경 조성

지역특성, 계절,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운영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예들은 學校教育에 있어서 目標樹立과 實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 4. 社會教育의 實現

教育은 결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出生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各種 社會로부터 非公式的 非意圖的인 教育的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個人이 忠孝를 實踐하는데 요구되는 能力에 관계되는 일체의 教育的 活動은 가정, 학교교육 뿐 아니라 社會教育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知識을 注入하는 教育이 아니고 가치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忠孝教育은 社會的 影響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忠孝의 價値德目은 宗教的 神祕的 要素와는 별로 상관없이 形成된 規범으로서 우리 社會의 要求와 社會的 動機에서 강조되고 있는 規범이다. 따라서 忠孝의 實踐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며 形式的 行爲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形式的 行爲는 반복되면서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위한 행동양식으로서의 機能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道德的 判斷의 기준이 된다.

우리의 生活에서 지켜지고 있는 規범들 특히 인습적 規범들은 一種의 文化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規範은 그 社會의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忠孝의 價値德目은 우리 社會의 規範體制의 일관성을 형성하는 준거

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忠孝의 價値德目이 우리 社會의 規範體制를 形成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社會的 合意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社會는 民主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開放社會인 만큼 普遍的인 도덕적 요소를 共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社會的 合意를 지키는 것은 外的인 拘束力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民主的 生活方式에 의한 合意야말로 자신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진 內的 統制力이 되므로 忠孝의 價値德目이 우리 社會에서 社會的 合意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들의 도덕 생활의 原理가 될 수 있다고 본다.<sup>40)</sup>

이처럼 社會的 合意를 이룬 忠孝의 價値는 社會的 學習을 통하여 개개인의 도덕 생활의 준거가 된다. 社會的 學習은 학교교육과는 달라 무의도적인 教育的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對人間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教育현상이다.

그러므로 社會教育을 통한 忠孝教育은 無意圖的으로 영향을 주는 教育的 측면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社會文化와 모든 社會化 過程이 社會教育의 자료와 기회가 되는 만큼 反社會, 反國家, 不信, 不敬 등 反社會的 要因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個人的 요구와 목적을 重要視하며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民主的 社會環境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sup>41)</sup>

---

40)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國民意識의 現在的 診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 257 참조.

41) 上揭書, p. 158.

現代社會에서 각종 마스크이 남발하는 教育이 逆機能的 現像은 커다란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다. 그들은 1차적 욕구충족이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몰상식한 非行뿐만 아니라 끔찍하고 가공스런 強力犯罪를 저지른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와 사회의 價値教育의 成就過程이 一致하지 못하는데 一次的 原因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正直'이라는 價値教育이 社會에서 '合法的인 不正'으로 통용될 때 학교의 가치교육은 무시되고 외면된다. 게다가 학교의 가치교육이 靜的, 觀念的, 理念的인데 비해서 마스크의 기능은 動的이며 具體的이고 實際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선정되고, 의도적,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産業體制의 기계화, 분업화 현상은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역할의 무력감, 自己價値感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教育의 逆機能的 現像을 順機能的 現像으로 선도하고 건전한 사회구조나 主體的 正體意識을 創造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國民들은 自己가 속해 있는 집단 내지 社會에 대한 애착을 갖고 同一視하게 되어 개개인이 서로 신뢰하고 敬愛의 精神을 발휘하게 되어 社會的 合意를 이룬 忠孝精神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社會教育을 통한 忠孝思想의 具現에는 다음과 같은 原則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忠孝教育은 學校에서 實施하는 教育의 계속, 보충, 확대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국민학교 아동에서부터 成人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적인 道德性教育이 되어야 한다.

둘째, 忠孝教育은 個個人的 自發的인 참여로 市民精神위에 이루어지는 相互教育이 되어야 한다. 學習者의 自由意思에 依한 自主的 自發的 教育이 아무런 구속이 없을 때, 忠孝價値는 저항없는 社會倫理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째, 忠孝教育은 세심한 준비와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社會教育이 便宜的이고 자유스러운 教育이라고 해도 忠孝思想의 具現이라는 目的達成을 위한 조직과 계획을 갖고 실시되어야만 教育의 效果를 견을 수 있는 것이다.

네째, 忠孝教育은 各種 民主的 집단이나 社會단체에 의한 학습활동의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각종 청년단체, 농민단체, 근로자단체, 여성단체, 소년단체 등에서 實施되는 社會教育은 社會的 合意인 忠孝價値 中心의 教育이어야 한다.

다섯째, 忠孝教育은 政治에서 中立이어야만 한다.

忠孝의 價値德目이 社會的 合意를 본 規範인 만큼 순수한 國民의 生活倫理로 發展되어야 하며 政治的 要求에 편승하여 發達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社會教育을 통한 忠孝教育도 政治에 干渉시켜서는 안되고 國民교육의 선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原則下에서 實施되는 忠孝教育은 國民들 個個人的 道德的, 知的 訓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社會에서 發生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不條理를 民主的, 協同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社會의 保存과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 V. 結 論

本 論文에서는 忠孝思想의 本源的 意味와 現代의 意義 그리고 實際 教育的 展開方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忠孝思想은 古代로부터 傳承해 온 民族倫理이다 孝와 忠은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行爲規範이고 家庭的인 孝가 家정을 초월해서 社會, 國家, 人類로 승화 발전하면 忠의 개념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民族이 수 많은 外세의 침략과 文化的 浸蝕에도 불구하고 民族固有의 個性을 지속 발전시켜 왔음은 忠孝思想에 입각한 확고한 主體意識이 있었음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民族 高유의 오랜 傳統인 忠孝思想을 그 옛날 君主獨裁 政治時代의 遺物이라 하고 君主를 섬기기 위한 臣下의 道理요, 父母의 뜻에 맹종하기 위한 子식이 道理로만 認識한다면 尤감된 일이라 생각한다.

忠과 孝에 대한 倫理性은 예나 지금이나 그 本質은 變함이 없는 타당한 것이 라 함은 여러가지 引用한 文헌들이 立證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時代狀況은 高도의 산업사회로 指向하는 과정에서 極端的이고 自己中心的 利己主義, 불신평조, 배금사상에 뿌리박은 物質至上의 技能價値를 중시하는 風潮 등이 深化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忠孝를 現代의 감각으로 되살려 우리의 生活倫理로 正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忠孝教育은 價値를 다루는 教育이나 忠孝價値가 어떤 特定인이나 집단이 추구 하는 가치는 아니며 우리 社會全體가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인 것이다. 따라서 忠孝教育은 特定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教育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

的 普遍價値로 教育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忠孝教育이 普遍價値를 教育하는 것이라 하여 敎育者들에게 획일적 敎育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社會는 민주주의 理念을 추구하는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社會構成員인 個個人의 특수한 能力과 취미와 個性을 가능한 한 伸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忠孝倫理 規範은 개인이나 특수집단에 의해 달리 意味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實生活에서 個個人이 實踐하는 忠行과 孝行은 그 方法에 있어서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忠孝教育은 그동안 生活化하기 위한 敎育이 不在不實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個個人의 自發性和 橫的인 유대감을 造成하는 분위기 속에서 家庭, 學校, 社會敎育을 통하여 忠과 孝에 대한 積極적이고 現代的인 개념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傳統, 현실, 未來를 連結하는 긍정적 차원에서의 價値敎育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單行本)

- 金泰吉外 2人, 「現代社會와 倫理」, 서울: 博英社, 1989.
- 金裕赫, 「傳統倫理와 現代社會」, 서울: 靑塔書林, 1989.
- 金學主 譯, 「忠經·孝經」, 서울: 明文堂, 1985.
- 孫仁銖, 「韓國人の 價値觀」, 서울: 文音社, 1979.
- 申澈元 譯, 「論語」, 서울: 은광사, 1987.
- 安明護 譯, 「忠經」, 서울: 進英社, 1977.
- 尹聖範, 「現代와 孝道」, 乙西文庫 181, 서울: 乙西文化社, 1975.
- 尹亮模, 「忠孝教育」-참된 한국인상 형성-, 서울: 한국도서출판사, 1979.
- 梁承奉, 「人間性 回復을 위한 人間教育」, 서울: 法經出版社, 1988.
- 李民樹 譯, 「父母恩重經三版」, 乙西文庫 100, 서울: 乙西文化社, 1977.
- 李榮德, 「韓國人の 人間觀」, 서울: 三和書籍, 1979.
- 李敦熙外 6人 共著, 「道德科教育」, 서울: 노력개발, 1975.
- 李熙昇,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5.
-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博文社, 1975.
- 張眞鎬, 「교육과 社會」, 서울: 大恩出版社, 1986.
- 趙眞泰, 「오늘의 忠孝教育」, 서울: 문중서관, 1977.
- 教育研究社編, 「主任講座」, 제6권 6호, 1986. 6.
- 大韓教育文化研究所編, 「現代人の 忠孝思想」, 서울: 대한교육문화연구소, 1979.

- 새마을연구소編, 「忠孝思想」, 華鏡文庫2,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7.
-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국민의식의 현재적 진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編, 「韓國儒學思想과 教育」, 서울:三一閣, 1976.

(論文)

- 金錡坤, “忠孝의 韓國思想史의 發展과 現代教育의 發展을 위한 探查的 研究”,  
전주교육대학 「論文集」, 제14집 1978.
- 金命震, “忠孝思想에 관한 研究”, 건국대 「社會科學」, 제9집, 1985.
- 金淸銀,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가족윤리 정립의 기본원리로서의 효-, 석  
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 金會式, “忠孝教育의 現代的 考察,” 공주교육대학 「論文集」 제14집, 1978.
- 金均東, “忠孝의 現代的 意義와 教育學的 分析,” 東義大學 「論文集」 제3집,  
1981. 3
- 申容守, “忠孝思想의 史的 考察과 現代的 意味,”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20집,  
1986.
- 安利範, “韓國 忠孝思想의 研究”-教育社會學的 則面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元弘淵, “忠孝思想,” 강릉대학 「論文集」 제7권, 1984.
- 趙載千, “現代倫理觀의 再定立과 教育에 관한 小考,” -忠孝倫理를 中心으로-,  
공주사대 「論文集」 제22집, 1984.
- 曹奎南, “孝思想의 韓國教育의 發展過程의 分析的 研究,” 전주대학 「論文集」  
제11집, 1982.

---

韓基彦, “韓國人の 意識構造와 忠孝思想,”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수도교육」  
1977. 4.



---

# A Study on the educational evolution of loyal and filial piety morals

Jeong chang Su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nn Chang Burm.*

The objects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affairs by researching traditional morals, Chunghyo ideas(loyalty and filial piety).

To attain the object, three aspects were divided in this study.

1) The original meaning of Chunghyo :

Hyo(filial piety) is based on human affection. The human affection is developed to the affection of parents, neighbors, society and nation.

The meaning of Chung(loyalty) is not to deceive oneself and to exert oneself to the utmost to others. So it can be explained as subjectivity and sincerity.

2) The modern understanding of Chunghyo ideas :

---

The conditions of Chunghyo ideas in modern society are :

First, to be equality ideas.

Second, to be respected humanity.

Third, to be practical ideas.

Fourth, to be the direct relation of human.

Fifth, not to go back to historical developments.

3) The practical evolution of Chunghyo education :

Through the education of home, school and society, concrete and practical education have to be unfolded.

As a result, the morals of Chung and Hyo is unchangeable up to now in the real subst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ife morals by means of modern types.

To do it,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educate synthetically and consistantly in the education of home, School and society.